

팬데믹과 기독교선교*

Pandemic and Christian Mission

유용옥(Yong-Ouk You)**

ABSTRACT

The COVID19 pandemic facing the world in recent years is a widespread epidemic unprecedented in human history. Pandemics have long accompanied human history, threatening church services and Christian missions. However, the pandemic was not always negative for Christian missions, and sometimes gave Christianity a chance for miss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he pandemic has historically influenced Christian missionary work, and to gain insight to find the direction in which Christian mission should go in the current COVID19 pandemic situation. There were two major pandemics in the early Christian era. At that time, Christians of the early church saw the care of patients as a way to practice Christ's love even if they risked death. This true practice of love impressed the Romans and contributed greatly to Christian mission. In the era of religious reform, the reformers not only cared for patients, but also practiced the love of Christ by presenting the hope of eternal life after death. In the early days of Protestant missionary work in Korea, People with infectious diseases were cared for in Christian mission hospitals, which changed their perception of Christianity. These educational and medical ministries greatly contributed to the Korean Protestant mission.

Key words : Pandemic, Christianity, Mission, COVID19

* 2020년 12월 4일 접수, 2021년 2월 1일 최종수정, 2월 3일 게재확정

이 논문은 제37회 기독교학문연구회 연차 학술대회(2020년 10월 31일)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원광대학교(Wonkwang University) 치과대학 교수,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460, gene7788@gmail.com

전주대학교(Jeonju University) 대학원 신학과(선교학 전공) 박사과정수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I. 들어가는 글

최근의 세계가 겪고 있는 COVID19 팬데믹(pandemic)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광범위한 전염병으로 모든 세상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다. 2020년 초 처음으로 중국 우환에서 시작되어 집단 감염을 유발한 COVID19은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과 아메리카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퍼져 나갔다. 2020년 여름 COVID19은 소강상태에 접어드는 것처럼 보였으나, 가을을 넘어서면서 2차 유행이 시작되었다. 2020년 10월 13일 기준으로 세계의 총 확진자는 3800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11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아시아지역에서 1100만 명이 발생하였으며 북미에서 900만 명, 남미에서 800만 명, 유럽에서 600만 명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150만 명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http://news.jkn.co.kr>). 가장 피해가 큰 국가는 미국으로 확진자가 810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가 22만 명에 달하였다. 2위 국가는 인도는 확진자가 730만 명, 확진자가 11만 명에 달하였으며, 3위 국가는 브라질로 확진자가 510만 명, 사망자가 2만 3천명이 나왔으며, 4위 국가는 러시아로 130만 명이 확진되었으며 사망자가 2만 2천 명을 넘어섰다(<http://news.jkn.co.kr>). 그 외에도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등의 유럽 국가들과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페루 등 남미국가들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도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http://www.skyedaily.com>). COVID19로 인하여 많은 나라들이 긴급사태를 선포하고, 해외입국자를 차단하였으며, 많은 대도시들이 봉쇄조치를 시행하여 도시 간의 이동을 통제하였다. 많은 나라들이 외출 금지 명령을 발동하였고, 프랑스, 중국, 러시아, 필리핀 등 같은 국가에서는 통행증을 발급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만 외출 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다. 2020년 11월 화이자를 비롯한 세계 굴지의 제약회사에서 COVID19 백신에 대한 임상실험을 진행하고 있으나 대중화되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COVID19 팬데믹은 한국사회의 많은 것을 변화시켰다.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주고 있다. 전염병의 확산으로 불특정 다수가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에 노출될 위험이 커짐으로, 정부는 국가와 사회의 모든 시스템이 통제하고 있다. COVID19 방역이 2.5단계로 격상되면서 음식점의 이용이 제한되고, 학교는 물론 학원 등의 수업뿐만 아니라 체육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공연장 등의 이용도 통제되었다. COVID19으로 학생들의 개학이 연기되고 인터넷 강의로 수업이 진행된 것은 한국사회가 역사적으로 처음 겪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COVID19 팬데믹은 국가와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큰 숙제를 던져 주었다. 한국교회가 해결해야 하는 당면한 숙제문제 중 하나는 ‘예배’ 문제였다. COVID19 방역체계가 격상되면서 정부는 오프라인 예배는 제한하였으며,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도록 권고하였다. 이로 인하여 기독교계는 큰 고민

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과연 온라인 예배가 오프라인 예배를 대신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기독교계는 논쟁할 수밖에 없었고, 온라인 예배가 가능한 교회들도 있었지만 기술적인 그리고 재정적인 문제로 온라인 예배가 불가능한 소형교회들도 많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다. 또 오프라인 예배의 금지가, 많은 경우에 있어서 교회의 재정과 성도수를 감소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으므로 소형교회들은 생존이 위태로운 지경에 처하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다.

2020년 2월 이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COVID19 팬데믹 확산을 막기 위하여 국경을 통제하게 되었다. 선교지의 국경이 봉쇄됨에 따라 선교사의 출입국은 물론 선교 물자의 왕래가 차단될 수밖에 없었다. 많은 국가에서 일상적인 외부활동을 통제함으로 인하여 생필품까지 구입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됨으로 선교사역의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많은 선교사들이 의료시설이 열악한 선교지에서 본국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나 선교사들이 본국으로 귀국하려 해도 항공편이 끊어져 선교지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발생하였으며, 선교사들 중에는 COVID19에 감염되어서 사망하는 사례까지 발생하였다. 2020년에 발생한 COVID19 팬데믹은 선교의 기반을 흔들어 놓았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COVID19 팬데믹을 말세의 징조로 보고 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서 예수님은 말세에는 곳곳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고 말세의 징조에 대하여 가르치시기 때문이다. 또 어떤 기독교인들은 COVID19 팬데믹이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보고 있다(황을호, 2018: 163-166). 신명기 28장 15-21절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염병을 내려서 심판할 것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질병이 꼭 죄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나 욱의 질병은 죄로 인한 결과로 볼 수 없다. 또한 전염병이 임박한 말세의 징조로 해석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과거 초기기독교 시대나 중세에도 팬데믹은 나타났다. 인류 역사를 돌이켜 보면 팬데믹이 오늘날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란 것을 알 수 있다.

성서시대는 물론 초기 기독교시대와 중세시대, 종교개혁 시대, 그리고 근대와 현대의 교회시대에도 팬데믹은 교회와 기독교선교를 위협하였다. AD 165년 로마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때 역병이 발생하여 로마와 그리스 그리고 이집트와 소아시아의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이 때 발생한 사망자 수는 약 5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황을호, 2018: 17-22). AD 541~542년 유스티니아누스 1세가 비잔틴 제국의 황제로 있던 때 페스트로 보이는 역병으로 인하여 비잔틴 제국과 사산제국 그리고 지중해 연안 국가들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사망자가 2,5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세 말인 AD 1326~1353년에 발생한 흑사병은 중앙아시아에서 발생하여 유럽으로 전파되었는데, 유럽 전역으로 퍼져 나가서 사망자가 약 7,500만 명에서 1억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정도의 숫자는 유럽인구의 30~60%에 해당한다. 흑사병 이전의 세계 인구가 약 4억 5천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흑사병 이후에는 약 3억 5천만 명으로 거의 1억 명의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14세기 흑사병은 유럽의 종교, 사회, 경제에 큰 영향을 주었다. AD 1852~1360년에 발생한 콜레라는 인도 갠지스 강 유역에서 시작하여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북미 그리고 아프리카로 확산되었다. 이 때 100만 명에 달하는 환자들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AD 1918~1920년에는 스페인 독감이 유행하였는데 세계인구의 3분의 1이 감염되었으며, 약 2,000~5,000만 명이 사망하여 치사율이 10~20%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에이즈(AIDS)는 처음에는 1976년 콩고에서 발견되었으나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약 3600만 명의 사망자를 내었으며, 현재도 3,100~3,500만 명이 감염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팬데믹은 인류 역사와 오랫동안 동행하면서 교회의 예배와 기독교선교를 위협하여 왔던 것이다. 그러나 팬데믹이 기독교선교에 있어서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으며, 때로는 기독교에 선교의 기회를 주었다. 팬데믹의 위기 속에서도 기독교선교는 지속되었고, 때로는 팬데믹이 선교의 강력한 추진력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는 역사적으로 팬데믹이 기독교선교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고찰함으로써 현재의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기독교선교가 나가야 할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통찰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초기 기독교시대의 팬데믹과 기독교선교

초기 기독교 시대는 일반적으로 예수의 지상사역 이후부터 로마에서 기독교가 공인된 313년까지의 시기를 지칭한다(김은수, 2015b: 114). 초기 기독교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았음으로 많은 박해를 받았다.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제국은 신격화된 황제와 로마의 신들(gods)을 숭배할 것을 강요하였다. 로마는 국가권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배의 방식 로마와 황제 숭배를 강요하였고, 궁극적으로 로마와 황제의 신적 권위를 주장하였다. 기독교인들의 가치관으로 볼 때 로마제국과 황제의 숭배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김의환, 1982: 70-72).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황제숭배를 거부함으로 여러 가지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뿐만 아니라 순교를 감수해야 하는 일도 많았다(이필찬, 2013: 60-68). AD 64년경 네로황제는 로마 대화재가 발생한 후, 네로가 로마에 불 질렀다는 소문이 확산되자 그리스도인들을 화재 일으킨 범인들로 몰아 처형하였다. AD 95년경 도미티안 황제는 자신을 신격화하고 숭배하도록 강요였고,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였다(김은수, 2015a: 40-41).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여 많은 순교자가 나왔다. 서머나 교회 감독 폴리갑이 화형을 당하였고, 기독교 변증가 저스틴이 순교하였다. 세베루스 황제도 아프리카의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여 카르타고의 파피티아와 알렉산드리아의 에레오니데스가 순교하였다. 데시우스 황제 때에도 로마 감독 코르넬리우스와 예루살렘 감독 알렉산더가 순교하였으며, 로마제국의 모든 종교행사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고 참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처형하였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은 로마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 의해서도 자행되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유대교의 이단종파로 간주하여 회당에서 추방하였다(김은수, 2015a: 60-61).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순교의 위협 속에서 어떤 이들은 지하무덤(카타콤)에 숨어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섬기던 유대인들 중에서는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례도 많이 일어났다. 또한 기독교를 배교하는 움직임도 생겨났다. 초기 기독교는 어느 면으로 보나 생존자체가 어려웠던 환경이었다. 이렇게 박해가 심했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급속히 확장되어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는 급격히 증가하여 초기 기독교는 놀라운 성장을 하게 되었다. AD 1세기 경에 소수에 불과하던 기독교인들은 AD 3세기말 750만 명에 이른다(손현선, 2017: 17-33). 이는 로마제국의 인구를 6000만 명으로 계산했을 때 10%가 넘는 복음화율을 보여 준다. 초기 기독교는 박해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놀라운 성장을 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 중에 한 요인이 팬데믹과 관련이 되어 있다.

초기 기독교 시대의 팬데믹은 오랜 기간 동안 반복되었다. 당시 팬데믹의 유행은 크게 두 차례 있었는데, AD 165년부터 약 15년 동안 지속되었고, AD 249부터 약 13년간 지속되었다(이상규, 2020: 119). AD 165년에 로마에서 큰 팬데믹이 발생하였는데, 이 팬데믹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생한 후, 감염된 원정군에 의하여 로마로 번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당시 팬데믹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약 15년 이상 지속되면서 팬데믹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가도 재발하여 로마제국의 인구 중 25~35%가 사망하였다고 알려졌다. 당시는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재위하였는데, 황제의 정식명칭이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안토니우스 아우구스투스이었기 때문에 팬데믹의 명칭이 ‘안토니우스 역병’이라 불린다. 아우렐리우스 황제도 AD 180년경 게르만 정벌 중에 이 역병으로 사망한다. 이 당시의 팬데믹은 페스트, 홍역, 천연두 등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장항석, 2018: 163-166). 황실의 사였던 갈레노스의 기록을 보면 인후염, 발열, 설사, 발진과 농포와 폐농양 등의 증상이 나타났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AD 249년 무렵부터 또 한 번의 큰 팬데믹이 로마를 덮쳤다. 이 시기의 팬데믹은 에티오피아에서 처음 발생하여 이집트를 거쳐 로마로 퍼졌고, 이후 전 유럽으로 퍼졌다(장항석, 2018: 163-166). 이 시기에 로마는 이민족의 침범으로 로마의 국경지역마다 전쟁을 하고 있던 시기였다. 전쟁은 이민족과의 접촉을 증가시켰고, 팬데믹이 신속하게 확산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였다. 로마

는 전쟁으로 인한 피해보다도 팬데믹으로 더 큰 피해를 입었다. 당시 로마 가톨릭교회의 주교였던 키프리아누스가 팬데믹에 대한 기록을 남겼기 때문에 ‘키프리아누스 역병’으로 불린다. 키프리아누스의 기록에 의하면 환자는 눈의 충열과 실명, 인후염, 구토와 설사, 다리 조직괴사 등의 증상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당시 로마인들은 전염병에 걸린 환자를 내 쫓았고, 사랑하는 친구라도 외면했으며, 로마의 이교 사제들과 고위층은 도시로부터 도피하기에 급급하였다. 심지어 황실의 의사였던 갈레노스마저도 로마의 병자들을 버리고 떠났다(장항석, 2018: 163-166). 질병에 걸린 노인들은 자녀로부터 버려졌고, 자녀가 질병에 걸리면 부모들은 자녀를 버리는 일이 일어났다. 병든 자가 죽기도 전에 길거리에 버려지는 일이 허다하였다. 죽은 자들은 장례를 치르지 않고 길거리에 방치되어, 거리마다 전염병으로 죽은 시체들이 즐비하였다. 로마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전염병만 모면하려고 하였으나 아무리 조심하고 예방하여도 전염병을 피할 수 없었다(이상규, 2020: 122; 엄성욱, 2008: 398).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전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감염된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음식을 먹이고 소생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베풀었다. 자신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병자들을 돌보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생필품을 공급함으로써 이웃사랑을 실천하였다. 전염병으로 죽은 환자들도 시신을 깨끗이 닦고, 수의를 입혀서 장례를 치렀다. 때로는 그러한 사랑의 실천의 대가로 죽음을 맞이하는 순교자적인 삶을 살았다(엄성욱, 2008: 396-398).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사랑을 실천하다가 감염이 되어서 죽음을 맞이하였다. 그 중에는 교회 중직자들 뿐만 아니라 평신도들도 있었다.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환자를 돌보는 일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 기록되어 있다(엄성욱, 2008: 398). 그들은 개인적인 부의 축적을 추구하지 않고 교회공동체에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면서 가난한 이웃을 구제 하였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약자를 도왔다. 이러한 이웃사랑의 실천은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국한하지 않고 모든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행하여 졌기 때문에 로마인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자신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남을 돕는다는 것은 로마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파라볼라노이(παράβολανοι)’, 즉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이라 불렀다(이상규, 2020: 123). 이 당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파라볼라노이’라고 불렸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자기희생적 사랑을 실천한 공동체였는지를 잘 나타내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로마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자기희생적 사랑을 통하여 복음의 실체를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리스도인 공동체 내부에서는 사랑과 봉사로 신앙의 확신과 결속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초기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의 사랑과 헌신은 기독교 선교에 큰 기여를 하였다고 학자들은 평가하고 있다(김은수, 2015a: 49-50).

III. 종교개혁시대의 팬데믹과 선교

중세부터 발생해온 팬데믹은 종교개혁시대까지 이어졌다. 종교개혁시대에는 1511년부터 1570년까지 팬데믹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며 대유행을 하였다. 이 시기의 팬데믹은 주로 흑사병(페스트)으로 알려져 있다(주도홍, 2020: 126-140). 흑사병은 종교개혁자들에게도 큰 고통을 주었다. 루터(Martin Luther; 1483-1546)는 동생과 자녀를 흑사병으로 잃었고(봉원영, 2020: 55), 쾰빙글리(Huldrych Zwingli; 1484-1531)는 흑사병에 감염되어 죽을 고비를 넘겼다(조용석, 2020, 141). 볼링거(Heinrich Bullinger; 1504-1575)는 아내와 딸들 그리고 사위들을 잃었다(박상봉, 2020: 169). 칼뱅(Jean Calvin; 1509-1564)에게도 그가 살고 목회했던 도시에 팬데믹이 평생을 따라다녔다(안명준, 2020: 151). 유럽의 도시에 흑사병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환자들을 버리고 도피하였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이러한 팬데믹의 위협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였다.

루터가 활동하던 종교개혁시대에는 기근과 전쟁 그리고 전염병으로부터 오는 공포가 항상 루터 주위를 맴돌았다. 루터가 법학공부를 포기하고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서 들어가서 1507년 사제 서품을 받을 당시에도 흑사병은 독일을 위협하였다(박규환, 2008: 48; 이상웅, 2017: 59-63).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신학박사학위를 받고 교수로 재직하던 1513년경에 독일의 아우구스부르크에서 흑사병으로 약 1,800명이 사망하였으며, 다른 도시들에서도 흑사병이 유행하였다. 당시 흑사병은 모든 사람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어갔고, 사람들의 편지 속에는 흑사병으로 인한 죽음의 소식이 끊이지 않았다.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죽음은 고해성사마저 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염병을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 생각했다(주도홍, 2020: 127). 황제였던 막스밀리안 1세조차도 흑사병으로 인한 죽음을 대비하기 위하여 자신의 관을 준비했다고 한다. 1520년 독일의 황태자 칼 5세(Karl V)도 흑사병 때문에 자신 거주하던 아헨을 떠나 피난 갔다고 전해지고 있다. 흑사병은 1527년 루터가 사역하고 있던 비텐베르크(Wittenberg)에도 급속히 퍼지기 시작하였다. 흑사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음으로 작센의 선제후인 요한은 모든 사람이 독일의 예나(Jena)로 피신할 것을 명령하였다. 비텐베르크 대학의 학생들은 예나로 피신하였고, 비텐베르크를 빠져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비텐베르크를 빠져 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루터는 자신이 목회하던 독일의 비텐베르크를 떠나지 않고, 환자들을 돌보고, 장례를 치르고, 영혼의 위로자로서 역할을 다하였다. 루터도 흑사병이 두려웠지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요일3:16)”라는 말씀을 의지함으로 죽음을 무릅쓰고서 환자를 돌보았다. 루터는 가족과 함께 흑사병으로 버려져 죽어가는 환자를 본인의 집에 데려와 돌보기도 하였다. 목숨을 내어 놓는 순교적 정신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한 것이다.

독일의 브레스라우(Breslau) 목회자였던 헤쓰 박사는 루터에게 편지를 보내어 ‘팬데믹 상황에서 목회자들이 자신이 돌보는 교구를 떠나 피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한적 있다. 당시 영주들은 전염병이 도시에 퍼지면 대피할 것을 명령하였다. 그러나 목회자들이 자신의 교구를 떠나 대피하는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교구에 남겨진 성도들은 성직자가 없어서, 예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은 육체적 그리고 영적인 돌봄을 받지 못할 것이고, 사망한 사람들의 장례를 치러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루터는 마태복음 25장 42-43절의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를 언급하면서 이웃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외면하고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함께 이웃을 짐을 나누어지어야 하며, 이웃 곁에 있으면서 이웃을 도와야 한다고 답변함으로써 이웃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책무를 설명하였다(봉원영, 2020: 57; 주도홍, 2020: 127). 그러나 이웃이 도움을 거절하거나, 이웃에게 도움을 줄 손길이 넉넉하다면 죽음을 피하여 대피하는 것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말씀(창12:12; 창 26:7; 창 27:43; 출 2:15; 삼상 19:10; 왕상 19:3)을 예로 들어 설명하였다. 루터는 전염병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로 인식하기는 했지만, 전염병 걸린 이웃을 방치해서는 안 되며 최선을 다해 도와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심각한 전염병의 경우, 이웃을 돕다가 돕는 사람 자신도 감염되어서 죽을 수도 있는 위험성이 큰데, 과연 전염병에 걸린 사람을 돕는 것이 옳으냐는 질문이 나올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루터는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개인위생, 전염의 차단, 소독, 정화 같은 방역조치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루터는 전염병이 무서워 너무 쉽게 환자를 버리는 것이나 방역조치 없이 맹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모두를 경계하였다(봉원영, 2020: 55-62; 황을호, 2020: 49).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돌보다 전염병에 감염이 된다면,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에 따라 신앙 안에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더욱 담대하고 용기 있게 이웃사랑을 실천할 것을 강조한다. 루터는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하여 자신의 가족과 함께 흑사병 환자를 본인의 집에 입원시켜 돌보았다.

칼뱅의 생애 가운데에도 평생 흑사병이 따라 다녔다. 그는 유럽에 흑사병이 발생하던 시기인 1509년 7월 10일 프랑스 노용(Noyon)에서 태어났다. 어머니 잔 르프랑(Jeanne Le Franc)은 그가 6살 되던 해 전염병으로 돌아가셨다(양낙홍, 2006: 207-209; 안명준, 2020: 153). 그가 14세 되던 1523년 노용에 흑사병이 퍼져 그의 아버지 제라르 코뱅(Gérard Cauvin)은 칼뱅의 안전을 위하여 파리 마르슈 학교로 유학을 보냈다(기독교교육연구원, 2017: 56). 칼뱅이 스트라스부르(Strasbourg)에서 사역할 당시에 흑사병이 유행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고, 1538년 칼뱅과 친한 사람들이 죽는 슬픔을 맛보게 된다. 칼뱅은 다른 사람들이 병들어 죽을 때에도 자신의 죄로 받아들이며 회개하였다. 칼뱅은 전염병을 심판과 연단이란 이중적 관점으로 이해했다. 즉 전염병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또 자신의

백성들이 죄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연단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연단 중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겪는 고통을 천사들을 보내어 돌보시고 극복하게 하신다고 이해했다. 칼뱅은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질병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권면하였다. 또 전염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을 위하여 돌보고 위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책무라고 가르쳤다.

칼뱅이 목회하던 스위스 제네바에 전염병이 창궐할 때, 그는 도피하지 않고 병원 사역과 교육사역을 통하여 제네바 시민들을 섬겼다. 칼뱅도 흑사병에 대하여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지만 제네바에서 병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목회자의 소명을 다했다. 제네바 시와 협력하여 구빈원을 설치하여 의료사역을 하였고, 프랑스에서 구호기금을 유치하여 환자에 대한 의료사역을 위해 노력하였다. 구빈원은 병자들의 치유센터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부와 고아 그리고 노인들과 집 없는 사람들의 안식처가 되었다. 그는 병자들을 돌 볼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교육함으로써, 제네바가 체계적으로 전염병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흑사병에 걸린 환자들에게 치료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 영생의 소망을 제시하여 줌으로써 환자들의 선교에 힘썼다.

쾰빙글리는 스위스의 종교개혁자로서 취리히의 그로스뮌스터(Grossmünster) 교회에서 사역하였다. 쾰빙글리가 취리히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흑사병이 발생하여 도시의 인구 4분의 1이 죽는 일이 발생하였다. 1519년 그가 과로로 건강이 안 좋아져 취리히에서 180 km 떨어진 페퍼(Pfäfers) 온천에서 요양을 하고 있을 때, 취리히에 흑사병이 발생하여 고통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취리히를 떠났지만, 쾰빙글리는 오히려 취리히로 돌아가 환자들을 돌보고, 죽은 사람들의 장례를 치러 주었다. 그는 자기 몸을 돌보지 않은 헌신적 목회로 말미암아 결국 그도 흑사병에 감염되어서 사경을 헤매게 되었다(강경립, 1998: 78-79; 황을호, 2020: 48; 조용석, 2020: 141-148). 이 때 쾰빙글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흑사병이 치유되는 체험을 하게 된다. 이 사건을 계기로 쾰빙글리의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 성령체험 전에 그는 그리스 철학과 에라스무스의 성경인문주의에 관한 저서에 영향을 받아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을 통하여 하나님과 진리를 알아가고자 추구했었다. 그러나 성령체험 이후에 성경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게 되었다. 참된 신학의 의미는 진정한 영의 양식인 성경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며, 참된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참된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은 곧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라 말하였다(조용석, 2020: 141-146). 그는 우리 눈에 보이는 빵과 포도주의 예전으로 베푸는 성찬식보다, 성령을 통하여 참된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영적 성찬식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쾰빙글리는 처절한 흑사병과의 투쟁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깊이 체험하게 된다. 자신의 모든 인간적인 욕망과 의지를 내려놓고, 내면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채울 때, 뼈 속 깊

이 하나님의 영적 말씀을 체험할 수 있다고 했다(조용석, 2020: 141-149). 성령체험으로 흑사병을 치료받았을 때 그는 종교개혁자로서 살아 갈 것을 결심하게 된다. 그는 이것을 ‘섭리신앙’이라고 표현하였는데, ‘섭리신앙’이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의지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다(조용석, 2020: 141-146). 흑사병의 죽음을 극복한 후 병상에서 일어난 쯔빙글리가 작곡한 ‘흑사병의 노래’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그리스도여, 저를 위해 일어나소서; 당신은 죽음을 승리하셨나이다! 제가 당신께 부르짖사오니; 저를 찢러 상처를 입히는 화살을 빼어 내임이 당신의 뜻일진대! 속히 저에게 평안을 주소서! ... 저를 불러가심이 당신의 뜻이라면 저는 기꺼이 따르리이다. ... 온전하든 부서지든, 이 땅에서 당신께서 저의 영혼을 취하시든, 당신의 행위는 선하시오며, 다른 그 무엇도 거룩하고 빛나는 당신의 삶을 더럽히지 못 할 것입니다(강경림, 1998: 79-80).

‘흑사병의 노래’는 오늘날까지 스위스와 독일 교회의 찬송가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

볼링거가 취리히 교회의 목사로 활동하던 시기에 흑사병이 발생하였다. 그는 흑사병으로 고통스럽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으며, 그의 아내와 딸들 그리고 사위들을 잃었다(박상봉, 2020: 165-178). 그는 가족을 잃은 슬픔을 가슴에 묻고 신앙적으로 반응하였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치유를 간구하고, 환자들의 심방을 통해 격려하였으며, 천국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설교를 통하여 환자들이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위로하였다. 그는 흑사병으로 취리히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죽음에 대한 신학적 답변서인 ‘병자들의 보고서’를 저술하였다. ‘병자들의 보고서’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질병과 고통 그리고 죽음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하여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박상봉, 2020: 176-178). 그는 이 저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죽음은 저주가 아닌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예비되어 있는 복된 죽음이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허락된 질병과 고통도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얻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볼링거의 글은 전염병의 어려운 현실 속에 처해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소망으로 고난을 극복해 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어 선교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종교개혁자들의 노력은 종교개혁시대의 개신교 선교에 크게 기여하여서, 흑사병이 끝났을 때 교회는 그리스도인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고 한다(박상봉, 2020: 178).

IV. 한국 초기 개신교시대 선교와 팬데믹

한국 초기 개신교 선교는 1884년 선교사 알렌(Horace Newton Allen)이 미국 공사관 의사로 한국에 입국하면서 시작되었다(김인수, 2002: 129-134; 정현규, 2012: 235). 조선 말기에 시작된 초기 기독교 선교는 대원군의 쇄국정책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조선인들은 서구 선교사들의 이질적인 외모 때문에 양이라 부르며 배척하였으며, 서구 기독교 문화가 조선의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생각하여 복음을 거절하였다. 초기 기독교 선교는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의 주도로 조선 선교가 이루어지는데 조선 선교의 특징은 의료와 교육선교에 있었다. 조선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선교 거점 지역에 미션 스테이션(mission station)을 만들었고, 그 곳에서 교회와 학교 그리고 병원을 건립하여 유기적으로 사역하였다.

당시 조선 사람들은 질병을 귀신이 가져다주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가난한 서민들은 마을 어귀에 귀신을 모신 집인 ‘서낭당’에 가서 병 낫기를 기도드렸으며, 그나마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무당을 불러 굿을 하였다(김동열, 2003: 323; 정성화·로버트 네프, 2008: 249; 문무홍외, 2008: 256-260; 정현규, 2012: 235). 조선 사람들에게 무당은 제사장이며 가장 많이 돈을 버는 직업 중 하나였다. 의학이 발전한 서양에서 온 선교사들의 눈에 비친 구한말의 조선인들은 너무나도 원시적이었으며, 심지어 야만적으로까지 보였다. 천연두는 조선에서 무서운 전염병이었다. 종두법이 소개되기 전 조선은 천연두에 안 걸린 사람이 없었고, 가족 중에서 천연두로 죽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다. 1903년 초 천연두가 유행하여 수 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왕실마저도 전염병이 돌았다. 가난한 서민들은 천연두에 걸린 아이들을 서대문 밖에 버렸고, 아직 죽지 않은 아이라도 살아날 가능성이 없으면 마을 외곽의 나무에 묶어두어서 가족에게 다가와 병을 옮기지 못하게 하여 죽기만을 기다리기도 하였다(정성화·로버트 네프, 2008: 248-251). 당시 조선인들은 천연두의 원인을 남방 어딘가에 사는 ‘마마 귀신’이 방문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마마 귀신’이 집집마다 빠르게 돌아다니며 병을 전파함으로 천연두를 ‘손님’ 또는 ‘손님마마’라고도 불렀다. ‘손님’을 달래어 내보내기 위하여 무당을 불러서 ‘손님굿’을 하였다. 무당은 귀신을 달내기 위하여 북과 팽과리를 치고 거리를 누볐고, 환자의 가족들은 돈과 음식을 귀신에게 바쳤다. 그래서 아이들이 살아남으면 아이들 얼굴의 마마딱지를 떼어서 절에 가서 불태우며 아이를 살려 주신 것에 감사하며, 가시를 지붕에 올려놓아 ‘손님’이 다시 오지 못하도록 부적으로 사용하였다(문무홍외, 2008: 210-213; 정성화·로버트 네프, 2008: 248-251).

당시 캐나다의 의료선교사로 한국에 왔던 에비슨(Oliver R. Avison)은 서울에 전염병을 치료하는 병원을 설치하였다. 길가에 버려져서 여름에 폭염과 폭우에 시달리면서 죽어가는 가난한 환자들은 병원에 입원시키고, 따뜻하게 보살피 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보여 주었다. 더불어 에비슨은

천연두 예방접종을 시행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천연두를 피해 갈 수 있게 하였다. 의료선교사들과 조선 기독교인들의 환자들을 위한 사랑의 실천은 조선인들과 정부에 큰 감동을 주었다. 당시 고종황제는 환자들을 돌보고 치료하는 의료선교사들에게 감사와 호의를 베풀었고, 이러한 황제의 호의는 선교사들이 활동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된다(김인수, 2002: 145-146).

조선에 유행하던 전염병은 천연두 외에도 콜레라가 있었다. 콜레라는 천연두보다 전염성과 치사율이 더 높았다. 1886년 조선에 최악의 콜레라가 발생하였다. 아펜젤러(Henry Gerhard Appenzeller)의 기록에 의하면 콜레라로 인하여 그해 7월에 10일간 3000여명이 사망하였고, 콜레라가 절정에 달하였을 때에는 하루에 460명이 사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1886년 서울의 사대문 안에 15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었는데, 사망자가 6천 - 1만 2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정성화·로버트 네프, 2008: 260-264). 1897년에도 조선에 크게 콜레라가 발생하였다. 병은 무시무시하게 퍼지기 시작하여 아침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저녁에 송장이 되어 나가는 일이 허다하였으며, 한 집안 식구가 같은 날 죽기도 하였다(김철, 2010: 173-177). 구한말 조선인들은 이 무서운 질병에 대하여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다. 이웃이 병에 걸리면 전염이 무서워 돌보지 못하였고, 죽도록 방치할 수밖에 없었다. 가족들이라 할지라도 병에 걸리면 성문밖에 버려서 성벽 아래서 죽게 내버려 두는 일이 많았다. 죽은 사람들의 시신이 마치 개나 고양이와 시신처럼 방치되어 냇물이나 강에 떠다니는 허다했다(정성화·로버트 네프, 2008: 260-264). 조선 사람들은 콜레라가 사악한 쥐의 악령이 일으킨다고 믿었다. 콜레라 환자가 느끼는 경련은 쥐의 악령이 다리 안쪽을 깨물며 올라와 피부를 거쳐 가슴까지 올라와 심장을 갇아 먹는다고 생각했다. 콜레라를 치료하기 위하여 고양이 가죽으로 환자의 경련이 일어난 부위를 문지르기도 하고, 집 대문 앞에 고양이 문양의 부적을 걸어 놓으면 콜레라를 일으키는 쥐의 악령이 들어오지 못한다고 믿었고, 쥐의 악령을 달래기 위해 기도를 드리기도 하였다. 무당들은 쥐들을 놀래어서 도망치게 할 목적으로 바가지를 굵어 고양이 소리와 비슷하게 소리를 내기도 하였다. 콜레라가 발생한 지역은 금줄을 치고, 금줄에 고양이 부적을 쭉 부쳤다. 고양이가 쥐의 악령을 쫓아 콜레라를 예방할 수 있다고 믿었기에 고양이를 기르는 집도 많았다. 실제로 이들 고양이는 전염병을 전파하는 쥐를 쫓아서 전염병 예방에 효과를 발휘하기도 하였다(정성화·로버트 네프, 2008: 264; 김철, 2010: 176-177).

당시 의료선교사였던 알렌은 조선이 콜레라에 취약한 것은 오염된 식수나 음식물, 지저분한 하수구의 오물 등의 열악한 생활환경이 원인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는 음식을 날 것으로 먹지 말고 끓여 먹고, 채소와 과일은 소금물로 씻어 먹을 것을 권장하여 콜레라를 예방하려고 노력하였다(정성화·로버트 네프, 2008: 256-258). 의료선교사였던 애비슨과 웰즈(James Hunter Wells)를 비롯한 의료선교사들이 콜레라 환자 수 천 명을 치료함으로 조선인들과 정부에 큰 신뢰를 얻었다. 애비슨은 조선 정부의 도움을 받아 경찰 지휘권까지 위임받아서 전염병 퇴치를 위한 사역을 할 수 있었다. 그는 전염병에

대하여 무지하였던 조선인들을 계몽하기 위하여 병의 원인과 예방에 대한 인쇄물을 만들어 배포하였다. 그의 사역은 조선인들과 정부에 큰 감동을 주었고 선교사역을 하는데 있어서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된다(김철, 2010: 173). 언더우드(Horace Grant Underwood)는 한양성 안의 곳곳에 설치된 검역소의 책임자로 봉사하면서 응급환자들을 돌보았다. 그는 조선 그리스도인들에게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같이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였다. 지원자들은 교육을 시켜서 조수와 간호사로서 환자들을 돌보는 사역을 같이 하게 되었다. 지원자 중에는 선비나 양반 계층의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육체노동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봉사를 하기로 결정하자 기꺼이 훈련을 받아 훌륭한 간호사가 되었다. 특별히 자원봉사자들에게는 환자들을 사랑으로 돌보아 줄 것을 부탁하였다. 검역관, 조수, 간호사 모두가 조선국기 위에 적십자가 그려진 배지를 달았는데, 가슴에 십자가를 단 의료진들이 조선 땅 어디에서나 일하는 셈이었다. 진료가 끝나고 저녁마다 진료소의 마당에서 예배를 드렸다. 찬송과 기도 소리가 진료소에 울려 퍼져서 의식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들을 수 있었다. 선교사의 사역을 신뢰하게 된 조선 정부도 선교사들의 사역에 협조하여 임시 응급병원을 세우고, 위생법을 실시하며, 전염병 퇴치를 위하여 예산을 투입하였다(김철, 2010: 173-178). 선교사들과 조선의 기독교인들의 노력은 효과적으로 전염병 퇴치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김인수, 2002: 146).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들이 죽지 않고 치료되어 살아서 걸어 나가는 것은 조선인들에게 적지 않은 감동을 불러 일으켰다. 며칠 밤을 새워가며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선교사들을 보면서, “이 외국인들이 어찌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할까? 이 사람들이 남에게 하는 것만큼 우리가 우리 애들에게라도 할 수가 있을 까?” 라며 말하곤 하였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거리를 걸어갈 때면, “저기 그리스도의 사람이 가는구나, 저 분은 한시도 쉬지 않고 병자들과 함께 밤낮을 일하고 있네. 무엇 때문에 그러지?”하고 한 사람이 물어 보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야”라고 다른 사람이 대답하곤 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김철, 2010: 181). 1894년 청일전쟁이후 평양에도 전염병이 창궐하였다(차경애, 2008: 85-91; 김인수, 2002: 145-146). 당시 평양은 콜레라와 이질 등의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보고되었다.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과 우마(牛馬)들이 죽어 시체로 방치되었고, 불결한 상하수도과 화장실 등으로 인한 오염된 물과 음식 그리고 해충들로 인하여 전염병은 급속도로 퍼져서 평안도 지역만 6만 명이 사망하였고, 조선 전역에 30만 명이 사망하였다고 보고되어 있다. 이 때 의료선교사였던 홀(William James Hall)과 복음전도자 마펫(Samuel Austin Moffett)과 리(Graham Lee) 등이 병들어 죽어 가는 환자들을 돌보았다고 한다. 특히 홀 박사는 성자처럼 자기 목숨을 버리다시피 헌신적으로 환자들을 치료하였다고 한다. 당시 전염병 환자를 돌보았던 의료사역은 절망에 빠져 있는 조선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었고, 사업은 나날이 번창하였다고 언더우드는 증언하고 있다(Underwood, 1908: 102-104).

조선인을 괴롭혔던 전염병 중에 하나는 한센병이었다(최병택, 2010: 228-234; 김원경, 2012: 165, 203). 한센병은 조선인에게는 천형 같은 전염병이었다. 조선인들은 한센병을 부정한 질병, 즉 ‘죄악’의 대가로 이해했다. 환자는 인적이 드문 곳으로 쫓겨나서 철저하게 고립되었고, 추위와 굶주림으로 목숨을 잃는 일이 허다하였다. 심지어는 한센병 환자의 가족까지 내쫓거나 불태워 살해하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하였다. 1909년 미국 남장로회는 광주에 광주 나병원을 설립하였고, 광주 나병원은 1926년 여수의 신평반도로 이전한다. 이는 1953년 ‘애양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부산의 ‘상애원’은 한센병 환자를 돌보기 위하여 미국의 북장로회에 의하여 1909년 설립되었고 이후에는 호주장로회에 의하여 운영되었다. 대구에는 ‘대구 나병원’이 1913년 미국의 북장로회에 의하여 세워져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았다. 가족들에게 버려진 한센병 환자들은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의 길을 열게 된다.

서양의 선교사들은 교육시설을 세워 조선에 근대교육을 시작하였다. 메리 스크랜튼 (Mary Fletcher Benton Scranton) 선교사는 이화학당을 열어 여성교육사역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한국인의 여성에 대한 편견 때문에 교육생을 모으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초기에는 기생, 첩, 버려진 아이들 등,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여성들이 주로 교육생으로 받아들였다. 그 중에는 천연두에 감염되어 가족들에게 버려진 아이를 선교사들이 치료하여 교육생으로 받아들인 경우도 있었다.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많은 전염병환자들이 치료를 받으면서 서양의술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었다(이재근, 2020: 197; 김동열, 2003: 323-498). 그 후 서구선교사들이 소개한 서양의술은 19세기 한국에서 의학혁명을 가져왔고 한국 근대의술의 획기적인 변화를 주었다고 평가되었다. 이러한 교육사역과 의료사역은 한국 개신교 선교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V. 21세기 COVID19와 선교

20세기 이후에도 팬데믹은 세계적으로 반복되었다. 1918년 유행했던 스페인 독감은 5천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내었다. 1968년과 1957년에는 홍콩독감과 아시아 독감이 유행하여 각각 100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내었다. 2015년에는 MERS, 2009년에는 신종플루, 2002-2005년에는 조류독감과 SARS가 유행하였다. 그럼에도 2020년 COVID19가 과거의 어떤 독감보다 가장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그 동안 인류가 현대 첨단 의학의 발전을 이루어 내면서 독감을 비롯한 감염성 질환은 인류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질환으로 생각했으며, 현대에는 치료하기 어려운 암이나 난치병의 극복을 중요 과제로 생각했었기 때문인 것 같다. 학자들은 세계가 COVID19 이전의 시대와 COVID19 이후

의 시대로 나누는 사회적 변화를 예측하고 있다. COVID19는 국가경제는 물론 세계경제를 흔들었고, 교회에도 큰 어려움을 주었다. 2020년 2월 COVID19는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국가가 주도하는 COVID19 방역과 의료체계는 힘없이 무너지는 듯 보였다. 이런 시점에 COVID19와의 싸움에서 최전선에 섰던 곳이 바로 대구 계명대 동산의료원이었다. 동산의료원은 미국 북장로회에서 파송된 의료선교사 우드브리지 존슨(Woodbridge O. Johnson, 1869-1951년, 한국명; 장인차) 1899년 세운 대구 ‘제중원’에서 출발하였다(기창덕, 1993: 142-143). 존슨 선교사는 대구 약전골목의 작은 초가집에 ‘미국약방’을 열어 약을 나누어 주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진료를 하면서 ‘제중원’이란 족자를 걸고 대구 경북지역에서 최초로 근대식 의술을 펼쳤으며 의료이외에도 교육, 사회, 경제, 문화에 걸쳐서 근대화에 기여하였다고 평가받고 있다(<http://www.dsmc.or.kr>). 그 후 제중원은 1903년 현재의 동산의료원 자리가 있는 동산동으로 이전하였다. 제중원은 한센병 환자의 구제사업, 천연두 예방접종 등을 통하여 전염병 퇴치사업에 힘썼고(이정은, 2006: 200-207; 홍창락, 2019: 34-35). 대구 경북지역에서 최초로 근대 의학교육을 담당했던 병원이다(기창덕, 1993: 142). 동산의료원이 된 이후에도 대구 경북지역의 결핵과 콜레라 등 전염병 퇴치에 중심적 역할을 하였다. 이런 제중원과 동산의료원의 노력은 대구경북지역의 선교에 큰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이정은, 2006: 208-209). 2020년 2월 20일 동산의료원이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이 되어 달라는 대구시의 요청을 받고, 서영성 원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고민에 빠졌었다(<http://news.kmib.co.kr>: 2020.5.15). 그러나 존슨 선교사가 세운 제중원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을 수락하고 22일부터 COVID19 환자를 진료하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 동산의료원의 COVID19와의 처절한 싸움이 시작되었다. COVID19 환자가 대구 경북지역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대구 경북지역의 의료시스템은 붕괴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의료진과 의료장비, 그리고 의료용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한국누가회’는 전국의 누가들에게 도움을 호소하였다(<http://www.kcmf.org>: 2020.3.23). 이후 많은 누가들이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대구의 동산의료원을 비롯한 의료기관의 진료와 물질적 후원에 참여하였다. ‘글로벌케어’도 동산의료원에 부족한 의장비와 의료인을 파견하였으며(<http://www.kcmf.org>: 2020.4.27), 중증환자 진료로 식사시간도 없는 의료진에게 간식과 생필품 등을 공급하고, 생필품 구호키트를 만들어 고통 받고 있는 어려움 당한 이웃을 도왔다. 또한 글로벌케어는 ‘STAND TOGETHER’ 캠페인을 통하여 COVID19로 고통 받고 있는 제3세계 국가들을 지원하고 있다. ‘사마리안들’은 ‘대구 이웃을 위한 사마리안들’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마스크 십일조 챌린지’를 진행하여 대구 이웃들에게 부족한 마스크를 후원하고, 대구의 소상공인들에게 도시락과 생필품을 구입하여 독거노인과 보호시설에 있는 노숙인들을 후원하였다(<http://news.cgntv.net>). 또 전국의 지역교회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금하여 고통 받고 있는 이웃들을 후

원하였으며, 전국의 지역 기독교연합회를 비롯한 기독교 단체들도 후원에 동참하였다. ‘아프리카미래재단’도 의료시설이 취약한 아프리카의 COVID19 극복을 지원하고 있다(<https://africaff.modoo.at>).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COVID19, 특히 대한민국이 경험한 COVID19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긍정적으로 행동했다고만은 볼 수 없는 요소들이 있다. COVID19의 첫 번째 유행은 기독교 이단 신천지의 집회에서 확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COVID19의 두 번째 유행은 보수 기독교 단체를 중심으로 한 집회를 통해 확산된 것으로 보도되었으며, COVID19의 세 번째 유행당시에는 BTJ 열방센터와 IM선교회 등 개신교 선교단체에서 COVID19이 많이 확산된 것으로 보도되었다(<https://imnews.imbc.com>). 심각했던 것은 이들 개신교 단체들에 연관된 사람들 중에서 COVID19 검사를 거부하는 사례도 많이 생겼다. 검사거부 이유는 기독교계 내부에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정치적 또는 종교적 음모론에 기인한 경우도 많았다. 또한 한국교회연합(CCIK)을 비롯한 보수 기독교 단체들이 대면 예배를 제한하고, 비대면 예배를 권고하는 정부의 방역정책에 반발하였고(<http://www.kidokin.kr>), 대면예배의 제한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하여 헌법소원도 제기하였다(<http://news.kmib.co.kr:2021.1.13>). 목회데이터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이런 기독교 단체들과 연관된 보도들은 한국 개신교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주었다(<https://www.yna.co.kr>). 한국 개신교의 신뢰도의 하락은 기독교 선교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리라 생각된다. 이에 대하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를 비롯한 진보 기독교 단체들은 한국교회가 이웃의 건강과 안전에 부정적인 인식을 준 점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반성하였다(<http://www.hani.co.kr>). 또한 한국 기독교계에 “이웃 생명의 안전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신앙 양태만 고집하는 교회를 어떻게 예수를 따르는 제자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며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는 과정과 그 이후에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어려움을 감수하는 모범을 보여 달라”고 반성을 촉구하였다.

VI. 나가는 글

COVID19로 인하여 한국교회와 선교는 분명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나 그 동안의 선교역사를 살펴보면 유행했던 팬데믹들이 교회 공동체와 선교에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란 것을 알 수 있다.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의 자발적인 이웃사랑에 대한 실천은 지역사회에서 이웃들에게 큰 감동을 선물한다. 또한 그리스도인들 내부적으로는 신앙의 확신과 결속력을 갖게 한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팬데믹이 창궐하였을 때, 생명을 걸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았다. 이러한 이웃사랑은 그리스도인들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고, 교회와 상관없는 일반인들에게까지 차별 없이 바쳐진 사랑이었

다. 때로 그러한 사랑의 대가는 너무나 컸다. 환자를 돌보던 그리스도인들도 전염병에 감염되어 순교에 이르게 되었다. ‘순교’는 라틴어로 ‘martyrium’인데 헬라어 ‘마루투리온(μαρτυριον)’에서 유래하였다. 마루투리온의 원래 뜻은 ‘증인’이란 의미인데, 따라서 ‘순교’와 ‘증인’은 그 어원이 같다(김은수, 2015: 40). 그러므로 죽기까지 이웃을 섬길 때,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언’이며 확실한 선교가 되는 것으로, ‘순교’는 ‘복음’ 대한 궁극적 ‘증언’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팬데믹의 어려움은 오히려 선교를 역동적으로 만들고, 흡입력으로서의 내적 요인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제까지 COVID19 극복을 위하여 바쳤던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에 경의를 표하며, 그들의 헌신이 비록 현재는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차세대의 선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강경림 (1998). 쾰빙글리의 종교개혁 사상. **신학지평**, 8, 66-114.
- [Kang, K. L. (1998). Huldrych Zwingli's reformation thought. *Theological horizon*, 8, 66-114.]
- 기독교교육연구원 (2017). “내 마음을 주님께 바칩니다” - 장 칼뱅의 생애와 그가 남긴 유산들 -. **교육교회**, 465, 55-58.
- [Christian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2017). “I dedicate my heart to you” - Jean Calvin's life and his legacy -. *Educational Church*, 465, 55-58.]
- 기창덕 (1993). 대구에서의 의학교육. **의사학**, 2, 142-158.
- [Kee, C. D. (1993). Medical Education in Taegu (1980-1991). *Korean Journal of Medical History*, 2, 142-158.]
- 김동열 역. (2003). **닥터 홀의 조선 회상**, Hall, Sherwood. (1978). *With Stethoscope in Asia: Korea*. 서울: 좋은씨앗.
- [Kim, D. Y. (2003). *With Stethoscope in Asia: Korea*. Seoul: Good Seed Publishing Co. Trans. Hall, Sherwood. (1978). *With Stethoscope in Asia: Korea*. McLean: MCL Associates.]
- 김우영 역. (2005). **전염병의 세계사**, McNeill, William H. (1998). *Plague and Peoples*. 서울: 이산.
- [Kim, W. Y. (2005). *Plague and Peoples*. Seoul: Yeesan Publishing Co. Trans. McNeill, (1998). William H. *Plague and Peoples*. New York: Anchor Books.]
- 김원경 역. (2012). **만유의 으뜸이신 그리스도**, Seel, David John. (2011). *In All Thing CHRIST Pre-eminent*. 서울: 좋은씨앗.
- [Kim, W. K. (2012). *In All Thing CHRIST Pre-eminent*. Seoul: GoodSeed Publishing Co. Trans. Seel, David John. (2011). *In All Thing CHRIST Pre-eminent*. The Estate of Mary B. Seel]
- 김은수 (2015a). **선교역사로 보는 교회사**. 서울: 생명나무.
- [Kim, E. S. (2015a). *Church History as Missionary History*. Seoul: The Tree of Life.]
- 김은수 (2015b). 초기기독교 확장에 대한 선교 역사적 성찰. **선교신학**, 38, 113-139.
- [Kim, E. S. (2015b). A Mission-Historical Study of the Early Christianity Expansion. *Theology of Mission*, 38, 113-139.]
- 김의환 (1982). **기독교회사**. 서울: 성광문화사.

- [Kim, E. W. (1982). *History of Christianity*. Seoul: Sung Kwang Publishing Co.]
- 김인수 (2002). **한국 기독교회의 역사(상)**.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 [Kim, I. S. (2002). *History of Christian Church in Korea*. Seoul: Presbyterian College and Theological Seminary Press.]
- 김철 역. (2010). **언더우드부인의 조선견문록**, Underwood, Lillias Horton. (1908). *Fifteen years among the top-knots*. 서울: 이숲.
- [Kim, C. (2010). *Fifteen years among the top-knots*. Seoul: Esoope. Trans. Underwood, Lillias Horton. (1908). *Fifteen years among the top-knots*. Boston : American Tract Society.]
- 문무홍외 역. (2008). **1900, 조선에 살다: 구한말 미국 선교사의 시골체험기**, Moose, Jacop Robert. (1911). *Village life in Korea*. 서울: 푸른역사.
- [Moon, M. H. (2008). *Village life in Korea*. Seoul: Bluehistory. Trans. Moose, Jacop Robert. (1911). *Village life in Korea*. Nashville: The M.E. Church, South Smith & Lamar, Agents.]
- 박규환 (2008). [...의 생애와 사상] 루터(1483-1546)의 생애와 사상①. **새가정**, 2008, 46-49.
- [Park, K. H. (2008). [...'s life and thoughts] Luther(1483-1546)'s life and thoughts①. *Christian Home & Family*, 2008, 46-49.]
- 박상봉 (2020). 불링거와 취리히 흑사병. 노영상외 (편저). **전염병과 마주한 기독교**. 군포: 다함.
- [Park, S. B. (2020). Bullinger and the Black Death in Zurich. In Ro, Y. S. et al. (Eds.). *Christianity in the face of an epidemic*. Gunpo: Daham.]
- 봉원영 (2020). 팬데믹 시대의 교회의 역할과 책임. **신학과 학문**, 29, 48-76.
- [Bong, W. Y. (2020). The Role and Responsibility of the Church in the Pandemic Age. *Theology and Other Disciplines*, 29, 48-76.]
- 손현선 역. (2017). **기독교의 발흥**, Stark, Rodney. (1996). *The Rise of Christianity*. 서울: 좋은씨앗.
- [Son, H. S. (2017). *The Rise of Christianity*. Seoul: GoodSeed Publishing Co. Trans. Stark, Rodney. (1996). *The Rise of Christianit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안명준 (2020). 칼뱅과 흑사병. 노영상외 (편저). **전염병과 마주한 기독교**. 군포: 다함.
- [Ahn, M. J. (2020). Jean Calvin and the Black Death. In Ro, Y. S. et al. (Eds.). *Christianity in the face of an epidemic*. Gunpo: Daham.]
- 양낙홍 역. (2006). **칼빈주의 역사와 성격**, McNeill, John T. (1954). *The History and Character of*

Calvinism.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Yang, N. H. (2006). The History and Character of Calvinism. Seoul: Christian Digest. Trans.

McNeill, John T. (1954). *The History and Character of Calvinism*.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엄성옥 역. (2008). **유세비우스의 교회사**, Pamphilus, Eusebius. The Ecclesiastical History of Eusebius Pamphilus. 서울: 은성.

[Eum, S. O. (2008). The Ecclesiastical History of Eusebius Pamphilus. Seoul: Eunsung Publications. Trans. Pamphilus, Eusebius. *The Ecclesiastical History of Eusebius Pamphilus*.]

이상규 (2020). 초대교회 당시의 전염병. 노영상외 (편저). **전염병과 마주한 기독교**. 군포: 다함.

[Lee, S. G. (2020). The Epidemic of the Early Church. In Ro, Y. S. et al. (Eds.). *Christianity in the face of an epidemic*. Gunpo: Daham.]

이상웅 (2017).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의 생애와 주요 저술 (1). **신학지남**, 84(1), 47-86.

[Lee, S. U. (2017). The Life and Main Works of Martin Luther (1483-1546) (1). *Presbyterian Theological Quarterly*, 84(1), 47-86.]

이재근 (2020). 한국 초기 기독교와 전염병. 노영상외 (편저). **전염병과 마주한 기독교**. 군포: 다함.

[Lee, J. G. (2020). Early Christianity and Epidemic in Korea. In Ro, Y. S. et al. (Eds.). *Christianity in the face of an epidemic*. Gunpo: Daham.]

이정은 (2006). 대구 제중원(현 동산병원)이 근대의료체계 형성에 미친 영향. **계명사학**, 17, 191-215.

[Lee, J. E. (2006). The Influence of Daegu Jae Jung Won(Dongsan Hospital) to the modern Medical System of Korea. *The Keimyung Sahak*, 17, 191-215.]

이필찬 역. (2013). **요한계시록신학**, Bauckham, Richard. (2003). The Theology of the Book of Revelation. 서울: 한들출판사.

[Lee, P. C. (2013). The Theology of the Book of Revelation. Seoul: Handl Publishing House. Trans. Bauckham, Richard. (2003). *The Theology of the Book of Revelation*. Cambrige: Cambrige University Press.]

장항석 (2018). **판데믹 히스토리**. 서울: 시대의창.

- [Jang, H. S. (2018). *Pandemic History*. Seoul: Sidaebooks.]
- 정성화, 로버트 네프. (2008). **서양인의 조선살이**, 1882-1910. 서울: 푸른역사.
- [Jung, S. W., Neff, Robert. (2008). *The Lives of Westerners in Joseon Korea and Korea Through Western Eyes*. Seoul: Bluehistory.]
- 정현규 역. (2012). **조선, 1894년 여름**, Hesse-Wartegg, Ernst von. (1895). *Korea, 1894 Summer*. 서울: 책과 함께.
- [Jung, H. G. (2012). *Korea, 1894 Summer*. Seoul: WithBook. Trans. Hesse-Wartegg, Ernst von. (1895). *Korea, 1894 Summer*. Dresden & Leipzig: Verlag von Carl Reissner.]
- 조용석 (2020). 쯔빙글리와 흑사병. 노영상의 (편저). **전염병과 마주한 기독교**. 군포: 다함.
- [Cho, Y. S. (2020). Huldrych Zwingli and the Black Death. In Ro, Y. S. et al. (Eds.). *Christianity in the face of an epidemic*. Gunpo: Daham.]
- 주도홍 (2020). 루터와 흑사병. 노영상의 (편저). **전염병과 마주한 기독교**. 군포: 다함.
- [Ju, D. H. (2020). Luther and the Black Death. In Ro, Y. S. et al. (Eds.). *Christianity in the face of an epidemic*. Gunpo: Daham.]
- 차경애 (2008). 청일전쟁 당시 조선 전쟁터의 실상. **한국문화연구**, 14, 63-102.
- [Cha, K. A. (2008). Actual Conditions of Korea as the Battlefield of the Sino-Japanese War. *The Korean Cultural Studies*, 14, 63-102.]
- 최병택 (2010). 남장로회선교부 한센병 환자 수용정책의 성격(1909~1950) : 여수 애양원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 역사**, 32, 227-262.
- [Choi, B. T. (2010). The Leprosy Relief and Asylum-establishment of America's Southern Presbyterian Missions in Korea(1909~1950). *Christianity and History in Korea* 0, 32, 227-262.]
- 황을호 (2020). **대유행병과 기독교**. 서울: 생명의말씀사.
- [Hwang, E. H. (2020). *Pandemic and Christianity*. Seoul: Lifebook.]
- 홍창락 (2019). **초기 제중원(대구동산의료원)의 의료선교의 역사와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충신대학교.
- [Hong, C. R. (2019). *A Historical Study on the Early Development of Medical Mission by Chejungwon (Daegu Dongsan Medical Center)*. Masters Dissertation. Chongshin

University, Seoul, Korea.]

Underwood, H. G. (1908). *The Call of Korea, Political-Social-Religious*. New York: Fleming H Revell.

국민일보 2020.5.15. “코로나 최전선 86일째 사투..거점병원 지정은 하나님의 계획.” <http://news.kmib.co.kr/article/print.asp?arcid=0924137934>. (검색일 2020.5.30.)

[“Corona’s 86th day of battle at the forefront... The Designation of a Base Hospital is God’s Plan”, Kookminilbo (2020.5.15.). Retrieved from <http://news.kmib.co.kr/article/print.asp?arcid=0924137934>. (2020.5.30.)]

국민일보 2021.1.13. “‘대면예배 금지’ 위헌 여부, 헌재에서 가려진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73831&code=23111111&cp=du>. (검색일 2020.1.30.)

[“The Constitutional Court deals with whether the ban on face-to-face services is unconstitutional”, Kookminilbo (2021.1.11.). Retrieved from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73831&code=23111111&cp=du>. (2020.1.30.)]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홈페이지. 의료원소개. http://www.dsmc.or.kr/content/01dsmc/01_01.php. (검색일 2020.5.30.)

[Keimyung University Dongsan Medical Center, Homepage, Retrieved from http://www.dsmc.or.kr/content/01dsmc/01_01.php. (2020.5.30.)]

글로벌케어 홈페이지. 활동소식. http://www.globalcare.or.kr/bbs/board.php?bo_table=s3_2. (검색일 2020.5.30.)

[Global care, Homepage, Retrieved from http://www.globalcare.or.kr/bbs/board.php?bo_table=s3_2. (2020.5.30.)]

기독인뉴스 2020.10.13. “한교연 대면예배로 온전한 교회예배 회복을 촉구” http://www.kidokin.kr/bbs/board.php?bo_table=f01&wr_id=3253. (검색일 2020.1.30.)

[“CCIK urged the recovery of complete church worship by face-to-face worship”, The Kidokin News (2020.10.13.). Retrieved from http://www.kidokin.kr/bbs/board.php?bo_table=f01&wr_id=3253. (2020.1.30.)]

스카이데일리 2020.10.15.,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3872만명 돌파, 사망자 110만명 육박.” <http://>

- www.skyedaily.com/news/news_print.html?mode=print&ID=113822(검색일 2020.10.15.)
- [“The world’s COVID19 confirmed 38.72 million people exceeded, and the death toll was close to 1.1 million”, Skyedaily (2020.10.15.). Retrieved from http://www.skyedaily.com/news/news_print.html?mode=print&ID=113822. (2020.10.15.)]
- 아프리카미래재단 홈페이지. 코로나19 아프리카 긴급지원. <https://africaff.modoo.at/?link=f0oj1tx7>. (검색일 2020.5.30.)
- [Africa Future Foundation, Homepage, Retrieved from <https://africaff.modoo.at/?link=f0oj1tx7>. (2020.5.30.)]
- 연합뉴스 2021.1.29. “‘코로나19’로 교회 신뢰도 급락…1년 만에 32%→21%” <https://www.yna.co.kr/view/AKR202101291513000005?input=1179m>. (검색일 2020.1.30.)
- [“‘Corona 19’ has led to a sharp drop in church confidence...32% to 21% in a year”, Yonhap News (2021.1.29.). <https://www.yna.co.kr/view/AKR202101291513000005?input=1179m>. (2020.1.30.)]
- 재경일보 2020.10.14., “14일 세계 코로나19 발생현황.” <http://news.jkn.co.kr/post/825667>(검색일 2020.10.14.)
- [“World COVID19 Outbreak on the 14th”, Jaekyungilbo (2020.10.14.). Retrieved from <http://news.jkn.co.kr/post/825667>. (2020.10.14.)]
- 한계레신문 2021.1.29. “개신교계 ‘한국 교회, 소상공인·시민에 고개조차 들 수 없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religious/981002.html?_ns=t0. (검색일 2020.1.30.)
- [“Protestant community ‘The Korean church cannot even raise its head to small business owners and citizens’, The Hankyoreh (2021.1.29.). http://www.hani.co.kr/arti/society/religious/981002.html?_ns=t0. (2020.1.30.)]
- 한국누가회(CMF) 소식지. 2020.3.16. “‘코로나19’ 지원을 요청드리며.” http://www.kcmf.org/board_WtAL39/31035. (검색일 2020.5.30.)
- [“Call for ‘Corona 19’ support”, CMF Newsletter (2020.3.16.). Retrieved from http://www.kcmf.org/board_WtAL39/31035. (2020.5.30.)]
- 한국누가회(CMF) 소식지. 2020.4.27. “코로나19 긴급모금 사용내역보고.” http://www.kcmf.org/board_WtAL39/31244. (검색일 2020.5.30.)

팬데믹과 기독교선교

Pandemic and Christian Mission

유 용 옥 (원광대학교/전주대학교)

논문초록

최근의 세계가 겪고 있는 COVID19 팬데믹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광범위한 전염병이다. COVID19 팬데믹은 국가와 사회는 물론이고, 교회의 예배와 기독교선교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인류 역사를 돌이켜 보면 팬데믹이 오늘날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란 것을 알 수 있다. 팬데믹은 인류 역사와 오랫동안 동행하면서 교회의 예배와 기독교 선교를 위협하여 왔다. 그러나 팬데믹이 기독교선교에 있어서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으며, 때로는 기독교에 선교의 기회를 주었다. 본 연구는 역사적으로 팬데믹이 기독교선교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고찰해 봄으로써 현재의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기독교선교가 나아가 할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통찰력을 얻고자 한다. 초기 기독교 시대의 팬데믹은 크게 두 차례 있었다. 당시 로마인들은 전염병에 걸린 환자를 내 쫓았고, 부모와 자녀마저 버리고 도피하기 급급했다. 그러나 초대교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환자를 돌보는 일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진실한 사랑의 실천이 로마인들에게 감동을 주고 기독교 선교에 큰 기여를 하였다. 종교개혁시대에는 1511년부터 1570까지 팬데믹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며 대유행을 하였다. 종교개혁자들은 이러한 팬데믹의 위협 속에서도 돌보았을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 영생의 소망을 제시하여 줌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였다. 이러한 종교개혁자들의 노력은 그 당시 개신교 선교에 크게 기여하였다. 한국의 개신교선교 초기에도 팬데믹이 유행하였고,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버려졌다. 전염병 환자들이 기독교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었다. 선교사들은 전염병에 감염되어 버려진 아이를 치료하여 기독교 학교의 교육생으로 받아들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교육사역과 의료사역은 한국 개신교 선교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주제어: 팬데믹, 기독교, 선교, COVID19